

방송 '테스트베드' 된 웹 예능... 허물어진 TV·온라인 경계

'배부른 소리'·'플레히리스토프' 등 파일럿프로그램보다 확실한 실험 공간 기존 미디어 영향력 축소 될 듯

성공이 보증된 웹 콘텐츠가 방송의 파일럿 프로그램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누적 조회수 555만회를 기록한 유두준의 먹방 콘텐츠 '배부른 소리'가 엠넷에 정규 편성된 데 이어 가수 이찬원과 김희제가 진행하는 '플레히리스토프'까지 TV조선에서 방영되기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전문가들은 레거시 미디어인 TV와 온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 그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일부에서는 콘텐츠의 주도권이 TV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V 방송과 웹 콘텐츠의 경계가 흐릿해졌다는 이야기는 5~6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JTBC는 '스튜디오 룰루랄라'를 설립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왔고, tvN의 스타 PD인 나영석은 '신서유기 외전: 삼시세끼-아이슬란드 간 세끼', '나홀로 이식당',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등의 스페셜 예능을 웹과 방송에서 동시에 공개해왔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웹 예능으로 시작된 프로그램들이 TV 방송에 정규 편성되고 있다.

엠넷의 디지털 스튜디오 M2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된 '배부른 소리'는 먹방의 원조 격으로 불리는 가수 겸 배우 유두준이 먹방을 선보이는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에 힘입어 지난달 말부터 엠넷에서 5주간 방송됐다.

이찬원과 김희제가 DJ가 되어 매주 주제에 맞는 노래를 추천하는 콘텐츠인 '플레히리스토프' 또한 누적 조회수 160만회를 돌파

하면서 지난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방영되고 있다.

정규 편성은 아니지만 30대 여성 PD의 시골살이를 담은 유튜브 콘텐츠 '오노르'도 구독자 26만여명을 확보하면서 최근 MBC TV에서 설 특집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웹 예능이 방송 프로그램의 사전 실험장, 즉 '테스트베드'(Test bed·성공 여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소규모 집단·지역·영역)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방송을 만드는 형식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파일럿의 경우 함께한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미래를 담보해줄 수 없는 형태의 실험이지만, 웹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확실한 실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예전에는 방송용과 온라인용의 틀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웹 예능을 방송에 활용하는 것이 이물감을 주지 않는다"면서 "웹 콘텐츠와 기성 미디어인 방송의 위상이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시청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될 뿐"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이 레거시 미디어의 붕괴를 촉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웹 공간을 실험장으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는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TV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웹 공간에서 콘텐츠를 선공개하고 낱 것의 영상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청을 촉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김성수 평론가는 "이미 웹이라는 공간의 어법이 기본 질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방송사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편성만 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지를 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선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부른 소리'



'플레히리스토프'

윤정희 딸,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 성년후견 신청

백진희씨 지난해 10월 청구 확인

프랑스 법원 결정에 따라 배우 윤정희(77)의 프랑스 내 후견인이 된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씨가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딸 백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정희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이때는 프랑스에서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 대해 윤정희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파리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29일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11월 3일 최종적으로 백씨 측 손을 들어줬다.

백씨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는 별도로 지난해에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윤정희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윤정희의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배우 윤정희

없다. 국내에 있는 동생들이 이 심판 사건에 이해관계인이거나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대응하거나 1심에서 백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불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삼자가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사건에서는 사단법인 선을,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윤정희 동생 5명은 딸 백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동생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백씨 측으로부터 방치됐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는데, 백건우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으로 흘렀다.

윤정희와 백건우는 해외 연주 등에 늘 동행하며 '인교부부'로 유명해졌기에 이번 논란은 문화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지난해 미국서 가장 많이 트윗 된 가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쟁쟁한 팝 스타들을 제치고 지난해 미국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으로 집계됐다.

22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최근 트위터가 분석해 발표한 '2020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 1위를 차지했다. 카네이 웨스트, 비욘세, 드레이크 등 세계적 스타들이 2, 3,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은 북미에서 공고한 팬덤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소셜미디어상의 영향력은 팝 음악계에서도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해당 순위에서는 차세대 K팝 보이그룹으로 부상 중인 에이티즈(ATEEZ)가 5위를 차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역시 인기 K팝 그룹인 NCT와 엑소가 6위와 7위에 랭크됐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의 트위터 기록에 대해 "방탄



소년단이 미국에서 그들보다 더 잘 알려진 많은 스타들을 (트위터에서) 압도한 것이 인상적이지만, 이들의 급부상을 지켜봐 온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미스트롯2', 25일부터 결승... 실시간 문자 투표 실시

TV조선은 '미스트롯2'의 결승전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스트롯2'는 2주에 걸쳐 진행되는 결승전에서 심사위원 점수, 대국민 응원 투표에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더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문자 투표로 얻는 수익금은 '미스트롯2'에 이어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제작진 측은 "미스트롯2 결승전에서 급작스럽게 770만건이 넘는 문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마비됐던 사태를 방지하기 위

해 문자 투표 업체와 여러 차례 모의시험을 가동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스트롯' 마지막 회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를 시간 내에 집계하지 못해 우승자 발표가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오는 25일부터 방송될 '미스트롯2' 결승전에서는 '진'의 자리에 앉기 위한 별사랑, 김태연, 김의영, 홍지윤, 양지은, 김다현, 은가는 등 톱(TOP)7의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